

현 낙농 문제의 해결은 특단의 조치 뿐이다



조 용 환
축산신문 취재부국장

정부는 우리나라가 수입증인 사료곡물량이 EU국보다 많다는 점을 인식, 자급축산의 길을 뒀고 모순된 법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국낙농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이다.

농업중 꽃으로 불리우는 낙농업. 반세기 한국낙농이 개방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다 유제품과 유사유제품 수입량이 큰폭 증가, 국내 재고분유는 좀처럼 소진되지 않고 있다. 쇠고기 수입량도 급증, 청초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산지소값은 오히려 하락 추세이다.

국내 재고분유는 5월 10일현재 1만4천톤에 육박하고 있다. 예년에는 4월부터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 웬만큼 쌓인 재고분유는 4월부터 소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들어 재고는 과거 자연치유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올해뿐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한 앞으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될 것이다.

우유소비가 회복되어도 재고분유가 근본적으로 소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수입유제품이 국내산 우유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도 수입된 유제품과 유사유제품은 1억2천3백4만3천8백98kg, 이 물량은 4천4백만 우리 국민 1인당 2.79kg을 소비시킨 셈이다.

이를 수입하는데 방출된 외화는 2억3천6백96만7백33달러(한화 약 1천8백95억7천만원)나 된다.

올해만도 3월말 현재 우유조제품이 1천8백40만달러나 수입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9% 증가했다. 치즈도 1천1백40만달러도 52.4% · 버터 조제품 2천5백60만달러로 58.4%나 각각 늘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금년중 수입될 유제품과 유사

유제품은 1억8천만kg을 상회하고 외화도 3억달러 이상 방출될 것 같다.

버터밀크 품목도 오는 7월부터 별도 추천이나 확인 절차없이 자동수입 승인이 이뤄지는 등 유제품 수입은 수입자유화에 따라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업체마저 값싼 모조분유 사용을 늘리고 있어 국산우유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분유재고 소진이 어려운 것이나 그렇다고 식품업체가 값싼 수입분유대신 국산분유를 무조건 사용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협이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통해 모조분유의 관세를 상향조정과 수입물량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조치가 작금의 재고분유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도 5월초 생산자단체, 유업체 관계자와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재고분유 소진에 나섰다. 농가피부에 이렇다하게 와 닿지를 않고 있다.

정부는 수급안정을 앞세워 쇠고기를 확대 수입중이다. 올들어 3월말 현재 5만5천6백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3.1% 수입액은 1억9천6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1.6%나 각각 늘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쇠고기 수입량은 2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물량은 생체중 5백kg 큰소기준시 지육률은 57.5%로 국내 한우 지육률 55% 보다 높게 가정해도 69만5천6백52두분 이라는 엄청난 수치이다.

앞친데 덮친격으로 농가경영압박 요인은 국제곡물 가격과 인건비, 땅값상승등 원유생산 제반비용이 오른다는 점이다. 옥수수만 해도 작년 이맘때 톤당 1백45달러에서 5월 10일 2백2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연간 배합사료 생산량 1천4백70만톤중 1천3백60만톤을 수입중인 국내 실정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승요인은 94년 12월 중국의 사료곡물수출 중단이후 2년6개월간 세계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저조와 일본·우리나라 등 곡물수요국은 미국산 옥수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은 50년만에 최저치인 9백65만톤 수준. 과거 10년간 평균재고는 6천만톤으로 소비량의 40% 수준이 바람직하나 현재 재고는 소비량의 불과 6% 수준이다.

더우기 올해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8천1백20만 에이커를 예상했으나 7천9백90만에이커로 감소했다. 이나마도 미 중서부지역의 건조기후로 파종이 지연되어 오는 7월 예상수확량이 가시화될 때 까지 국제곡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중국은 옥수수를 '94년 1천만톤을 수출하였으나 '95년에는 역으로 4백30만톤을 수입하였고 올들어서는 3월 현재 2백50만톤을 수입했다. 소맥 또한 연간 1천만톤을 수입했으나 올해는 1천3백만톤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사료곡물생산의 한계 소비의 증폭을 옥수수를 비롯 사료곡물 전반에 대한 가격상승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중순 11~12% 인상된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금년중 두자리숫자로 또다시 인상할 움직임이 사료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은 낙농가는 유희농지를 이용하여 사일리지용 옥수수등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재배해야 한다. 또 저질조사료인 볏짚이라도 다량 확보해 암모니아가스 등을 처리하여 품질을 높여 생산비를 낮춰야 올겠다.

사료업체는 수입선의 다변화·수입곡종의 다양화에 나서고 사료의 안정성·품질관리·경영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역시 배합사료 영세율 전면적용·사료곡물 관세의 최저세율 적용등의 제도개선과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확대지원해야 올겠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민간과 정부가 어우러져 해외사료자원을 개발하고 자급사료단지를 적극 유치, 생산비를 낮추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낙농가는 산유능력이 우수하고 혈통이 확실한 젖소개량에 나서는 반면 저능력우는 과감히 도태해야 한다. 또 위생적인 유질향상에 나서 고급유제품 생산을 용이케 하는 것도 낙농가의 몫이다. 아울러 숫젖소는 육량·육질을 향상시켜 제값을 받도록 해야 올다.

아무튼 정부는 우리나라가 수입중인 사료곡물량이 EU국보다 많다는 점을 인식, 자급축산의 길을 닦고 모순된 법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국낙농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이다.